

JIPYONG
DUROO

PRO
BONO

ANNUAL
REPORT

JIPYONG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지평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www.jipyong.com

사단법인 두루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9층
TEL 02.6200.1853 FAX 02.6200.0811
www.duroo.org

2015
지평·두루
공익활동
보고서

MESSAGE

인사말

02

MISSION & INDICATOR

공익활동
미션&지표

04

NEWS

공익활동
10대 뉴스

06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장애 인권활동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국제 인권활동
기타 공익활동
공익법활동 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08

OTHER ACTIVITIES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사회공헌활동
기부활동
공익교육활동

16

INTERVIEW

공익활동
이야기

22

DONATION

두루
기부 이야기

36

ACCOMPLISHMENT & EVALUATION

공익활동
평가지표

38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사회적 책임 보고

40

**2015
JIPYONG
DUROO
PRO BONO
REPORT**

MESSAGE

인사말

'법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 법에도 눈물이 있다지만 / 법처럼 굳은 땅에 어떻게 싹이 틈까
바위 밑에서 민들레가 돋아나듯 / 아마도 꽃 피우는 법이 따로 있기는 있을지 몰라'
정희성 시인의 '겨자꽃 핀 봄날에'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법으로 사람을 위하고자 합니다(以法爲人). 법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힘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수인 사람을 안아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법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지평과 두루는 올해도 부족하나마 애를 썼습니다. 다양한 공익소송, 공익입법활동, 공익자문 및 연구, 법률교육 등 공익법률활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깊이를 더하려 노력했고 농촌봉사, 연탄나눔 등 사회공헌활동도 더욱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만난 사람들, 아이들, 장애인들, 난민과 외국인들, 사회적기업, NGO는 저희에게 법의 의미와 무게를 더욱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세상을, 그리고 희망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지평은 공익적 관점으로 로펌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외국 (미국)변호사를 뽑았습니다. 지평에는 수화를 언어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 직원과 탈북민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종이컵을 줄이는 환경실천캠페인을 했고, 사회적기업과의 거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공익활동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로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힘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수인 사람을
안아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평 공익위원장 / 두루 이사 **임성택**

MISSION & INDICATOR

공익활동 미션 & 지표

"나눔, 배려, 참여"

국내 법무법인 사회공익활동의 시작은 지평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에 따라 지난 2000년 국내 법무법인 가운데 최초로 공익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지평 공익위원회는 공익활동을 기획·지원하고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국내 법무법인 사회공익활동의 선도자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단법인 두루를 통해 공익활동의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2014년 법무법인 지평은 사회정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비영리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두루는 공익소송, 법률자문과 상담, 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두루 살피고, 보다 따뜻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공익활동 시간

4,229.69^h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229.69시간 : 118명)

35.84^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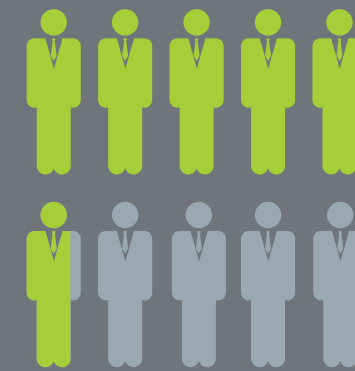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103명 / 118명)

87.29%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69명 / 118명)

58.47%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소속변호사
83.82%

구성원변호사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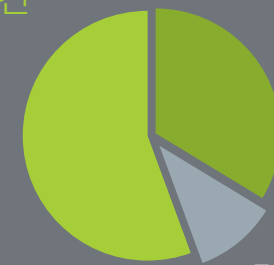
공익활동 수치

645^건

공익자문 의견
375^건

공익상담
230^건

공익소송 대리
40^건



총 사회봉사활동 시간



1인당
5.63^h



전체구성원(312명)
1,756.5^h

NEWS

공익활동 10대 뉴스

02

인강재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의 재할교사들이 거주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장애인 급여 및 보조금까지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인강원 거주 장애인들이 추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서술시,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 일부승소

시외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리프트설비 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평은 공익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교통사업자에게 리프트설비 등을 포함한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개선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비마이너



03

SK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법률지원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본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특히 이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04

루트임팩트와 함께 소셜벤처 법률지원

지평과 두루는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8월 17일 루트임팩트가 지원하는 성수동 소재의 사회혁신가들에 대한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루트임팩트는 사회혁신가를 위한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사회혁신가들이 더 큰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05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사업 법률지원

지평과 두루는 8월 8일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Partnership ON)'사업 위촉식을 갖고,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혁신리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6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법률지원

지평과 두루는 전국 34개 해바라기센터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상시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07

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법률지원

지평과 두루는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상응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평과 두루는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리하여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08

두루 펠로우 변호사 2명 채용

'두루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실무 및 교육 훈련을 통해 실력 있는 공익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권 분야의 이주연 변호사와 사회적경제 분야의 김용진 변호사가 두루에 합류하였습니다.



09

두루 로스쿨 제1기 실무수습 운영

제1기 두루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이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고, 모두 8명의 로스쿨생이 참여했습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송전선설비 헌법소송, 시외이동권 소송 등을 과제로 수행했고, 관련 NGO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며, 각 영역 담당변호사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0

두루 공익영화 상영회 개최

두루는 8월 18일 노동법연구소 해밀과 함께 충무로 대안극장에서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를 개최하였고, 11월 20일에는 장애인법연구회와 함께 씨네코드 선재에서 영화 '미라클 벨리에' 상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로공단'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울림 있게 다룬 영화이며, '미라클 벨리에'는 청각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드라마입니다.

2015년 지평 공익의 날, 두루 창립일

일시 2015년 9월 1일 (화) 오후 12시

장소 법무법인 지평

‘사람’이 주인공인 세상을 꿈꿉니다.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장애 인권활동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국제 인권활동

기타 공익활동

공익법활동 증대 및 NGO 네트워크 협력

01

장애 인권 활동

인강재단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 및 법률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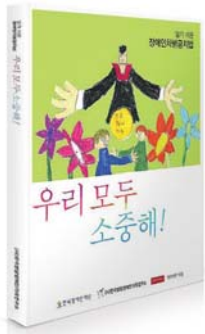
인강재단 산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인강원 내 거주인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구 이사회에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리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 이사회는 임시이사 파견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를, 새로운 이사회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지난 11월 위 소송들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강원 사건의 가해자들(인강재단 전 이사장, 인강원 전 원장, 생활재활교사 등)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재단 산하 다른 발달장애인 시설인 송전원 내 거주인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서울시와 새로운 이사회에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 인강재단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 및 법률자문
-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지원 및 장애인 권리옹호기구 도입을 위한 활동
- 개정 상법 제732조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연구
- 성일중학교 유휴공간 활용한 발달장애인 직업교육·훈련기관 설치 관련 서울시교육청 등 법률자문
- ‘법을 통한 평등 실현’ 장애인법 국제심포지움 지원(장애인법연구회 등 공동주최)
-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가를 위한 형사소송
- 장애인 인신보호청구소송
- 토익 응시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저시력장애인 법률자문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단체파견 및 법률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 뇌병변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법원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관련 검토
- 경기장애인인권센터 법률자문 :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블랙박스 적법성 관련 검토
- 의료보호대상자인 중증 여성장애인 의료과실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장애인권교육강사 심화워크숍 및 지적발달장애인 권리옹호교육영상 콘텐츠 개발사업 지원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신규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춘천지방법원 장애인 인권 교육
- 일본·한국 피플퍼스트 대회 연수
- ‘우리 모두 소중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제작 지원 및 감수

‘우리 모두 소중해’ 도서 제작 지원 및 감수

지평과 두루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가 제작한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라는 도서의 출판비용을 지원하고 도서 내용을 감수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를 제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45차례나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고쳤으며, 필요한 경우 그림을 통한 부연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지평은 2014년 3월부터 장애인들이 버스를 상대로 “시외버스,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좌석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와 시장, 경기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저상버스 도입 및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 정책과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소송은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는 영유아 동반자와 무릎이 불편한 고령자까지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원고로 하여 지평과 법무법인 태평양,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 원고의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함께걸음

미혼모대안학교, 나래대안학교 법률교육

지평과 두루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애란원이 운영하는 ‘나래대안학교’에서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 소속변호사 30명은 3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10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소비자로서의 권리, 성폭력·성매매, 소년범죄, 입양특례법 등 입양의 이해, 아동학대, 혼인과 이혼, 양육비 청구, 인터넷 사용과 표현의 자유, 가족관계 등록(출생신고, 자녀의 성 변경),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권과 차별’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미혼모 청소년들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 소년보호사건 대리
-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대리
-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피해자 대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청소년’ 규정 헌법소송 및 개정 지원
- 아동인권포럼, 아동복지법 아동보호전달체계 관련 개정 지원
-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 지원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파견 및 법률자문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 인권모니터링 자문
- 미혼모대안학교 ‘나래대안학교’ 법률교육
-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 ‘인권과 법’ 교육
-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함께 청소년진로체험교육
- ‘관악구 성착취 십대 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주관단체
- 소년선도심사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아동구금 근절을 위한 법·정책·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지원
- 사단법인 글로벌호프, 인도불가촉천민 아동과 여성의 인권과 교육 기회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순다르의 꿈꾸는 희망도서관’ 사업 지원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법률자문

지평과 두루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사유에 대한 해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시행 문제,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청소년 당사자 의사 충돌 문제 등 다양한 현장의 고민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현장 파견을 나가, 사례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소송대리, 입법개정운동, 교육 지원

지평과 두루는 미혼모자시설을 통해 의뢰받아 피해자 변호사로서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들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과 두루는 십대 성매매의 특수한 맥락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매매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피고인들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두루는 이와 같은 소송 지원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공익입법활동과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사업 법률지원

지평과 두루는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사업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혁신리더 청소년단체’에게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2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지평과 두루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인식하고, 그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 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SK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법률지원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상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기관과 사회적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SK그룹 등으로 구성된 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과 지평, 두루는 6월 9일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35개 사회적기업에게 법률자문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루트임팩트와 함께 성수동 소셜벤처 법률자문

지평과 두루는 8월 17일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루트임팩트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혁신가들에게 법률교육과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지평과 두루는 HGI, 루트임팩트, 프라미스, 마리몬드, 두손컴퍼니, 위누, 예코준컴퍼니 등 성수동 소재의 여러 소셜벤처들을 상대로 계약서 검토, 새로운 사업의 적법성 검토, 상표권 보호방안 검토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교육 'Law-큰롤' 실시

지평과 두루, 루트임팩트는 강사와 참여자 모두에게 즐겁고 역동적인 강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본 법률교육을 'Law-큰롤'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법인 설립과 투자약정,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제로 한 달에 한 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약 2시간 동안 변호사와 사회적기업가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기독교도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지평과 두루는 현재 파키스탄 기독교도 3명을 대리하여 난민지위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많은 기독교도들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파키스탄 인들은 난민신청절차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국선대리인 등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평과 두루는 본 사안의 파키스탄인들에게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건너대학 한국학센터 설립 지원

지평은 해외지사와 협력하여 공익활동을 하는 그 첫 걸음으로 베트남 건너국립대학의 한국학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센터의 연구사업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평과 두루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에 태어난 자녀를 위한 법률업무를 지원하고, 베트남 대학에 한국의 선진적 법률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헬프시리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업무 자문

지평과 두루는 헬프시리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헬프시리아는 시리아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 시리아 내전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시리아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 국내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아울러 지평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봉사활동 및 공익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법률자문 : 시각장애인 안마사 협동조합의 안마업 영위 가부 검토 등
-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성수동 소셜벤처 법률자문 : 투자계약 관련 검토, 상표권 보호 방안 검토 등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법률자문 :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관련 검토
- 행복나눔재단 법률자문 : 행복한학교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원 등
- 기획재정부 법률자문 : 협동조합 출자금에 담보 설정 등 검토
-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법률자문 :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모금에 관한 적법성 검토
- 행복나래 법률자문 :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구조 검토
-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성수동 소셜벤처 'Law-큰롤' 법률교육

03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04

국제 인권 활동

주요 활동

- 파키스탄 기독교도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 헬프시리아 한국 내 비영리법인 설립업무 법률자문
- Feed the Children 한국 내 비영리법인 설립업무 법률자문
- IVECA(International Virtual Elementary/Secondary Classroom Activities) 한국 내 비영리법인 설립 및 회계 등 운영업무 법률자문
- 국경 없는 의사회 법률자문
- 기부 및 모금 관련 국내법체계에 대한 상시적 법률자문
- KOTRA 하노이 무역관 법률자문
- 주미안마 한국대사관 법률자문
- 주호치민 영사관 법률자문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인권법센터 '보다', UN인종차별 특별절차 한국보고서 관련 활동 및 백서 제작사업 지원
- 미얀마 한인회를 통한 한인학교 설립 지원
- 농 · 축산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지구인의 정류장' 지원
- 동방사회복지회, 필리핀 앙헬레스 동방아동센터의 공부방 이용 아동 차량지원서비스 지원

주요 활동

- 선거운동의 자유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 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원칙 등 / 보호감호 집행 관련 사회보호법 부칙 헌법소원
- 직업선택의 자유 등 /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관련 장애인복지법 헌법소원
- 환경 / 송전선 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헌법소원
- 여성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고소송
- 노동, 여성 /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직직장암지원센터 법률자문 및 상담
- 노동 / 해고된 계약직공무원 지위확인소송
- 노동 /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법률자문
- 탈북민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출사기 관련 소송
- 통일 / 남북한 국토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 통일 /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법률자문
- 인권 전반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인권침해 정지상당
- 인권 전반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
- 지방자치 /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도 걷는 길 조례제정 법률자문
- 국제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가입 관련 법률자문
- 국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자문
- 국제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법제 정비 전략 연구
- 시민단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시민단체 / 기부금 관련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예산감시 관련 시민단체 법률자문
- 시민단체 / 나눔인터내셔널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름다운가게 법률자문
- 집회 · 시위의 자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기소 징계사건

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등 헌법소원

지평은 '녹색당'의 요청으로 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등에 대한 헌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탁금은 재력이 충분하지 않은 정치신인이나 신생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공개장소 연설'을 할 수 없게 금지한 조항, 서구에서는 돈 안 드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로 허용되는 '호별방문'을 금지한 조항 등도 신생정당의 선거운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지평은, 비록 기성 정치세력에 속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이바지한다는 공익 목적을 두고 이들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집회 · 시위의 자유, 여성, 노동, 환경, 통일 등 다양한 공익법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6

공익법활동 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지평과 두루는 공익사건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공익법 영역에서의 변호사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익사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별 변호사와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단체 사이에 공익법활동을 중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NGO가 쟁점화하는 의제들을 공익활동을 원하는 개별 변호사에게 연결
- 공익법영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법활동 매뉴얼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

지평-두루 공익활동 공모전 '두루와, 두루와'

지평 공익위원회와 두루는 공익활동에 대한 지평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공익활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9월 21일부터 약 한 달간 공익소송 · 자문 · 사회공헌활동 분야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발달장애학생능력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법률자문활동과 미안마 홍수 피해지역 지원활동, 유니세프 아우인형 만들기 등의 활동은 내년 지평과 두루의 공익사업으로 우선하여 추진될 계획입니다.



공익활동 변호사단체/모임 네트워크 협력 및 지원

지평과 두루는 공익변호사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두루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공익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익변호사단체 및 공익전담변호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변호사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전체 변호사의 공익활동 확장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 장애인권 · 사회적경제 분야 펠로우 변호사 채용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
-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공익변호사 한마당' 참여
- 로펌 공익전담변호사 정기회의 참여
- 공익변호사모임 회의 참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 : 연' 캠프 지원
- '2015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지원
- 광주전남공익변호사모임 '동행',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 지역활동 공익전담변호사 지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사 비용 지원

05

기타 공익 활동



함께 '땀'을 흘리며 이웃과 호흡하고자 합니다.

OTHER ACTIVITIES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 사회공헌활동
- 기부활동
- 공익교육활동



01 소외계층을 위한 빵만들기

지평과 두루는 한 달에 한 번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와 협력하여 제빵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갓 만든 따뜻한 식빵은 독거노인 등 서대문구의 소외된 이웃에게 배달됩니다.



02 경북궁 · 창경궁 야간개방 자원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2월, 5월, 10월 총 8회에 걸쳐 경북궁과 창경궁 야간개방(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동안 궁내 안내 및 질서유지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04 산 정화활동

지평과 두루는 6월 20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산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관악산에서 매해 2차례 실시하였던 산 정화활동은 올해 처음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진행되었고,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평 및 두루 구성원 22명이 참여하여 돼지풀을 제거하고 등산로를 정화하였습니다.



03 '아름다운가게' 장터 및 '아름다운 토요일' 활동

4월 25일 제 5회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이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열렸습니다. 지평은 2년마다 한 번씩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5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두루 구성원 31명은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충북 제천시 덕산면으로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지평의 농촌봉사활동은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덕을 캐고 나르는 일을 도왔으며, 덕산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덕산 포럼, 마을 어린이집, 누리마을 빵카페 등 다양한 농촌공동체 살리기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06 '겨레얼학교' 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11월 7일 목동의 탁구클럽에서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하는 겨레얼학교 탁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겨레얼학교는 저소득층 탈북청소년들과 탈북 2세 아동들을 지원하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지평은 2011년 학교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겨레얼학교를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07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참여

지평과 두루 구성원 30여 명은 12월 5일 노원구 상계동 인근에서 '지평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6가구에 가구당 200장씩 총 1,2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로 11번째 행사인 만큼 숙련된 솜씨로 당초 배당된 연탄 외에 600여 장의 연탄을 더 나르기도 하였습니다. 다소 벅찬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모두는 시종일관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눔의 참뜻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01

사회공헌 활동

지평은 두루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실천캠페인 활동

지평과 두루는 9월 1일 '지평 공익의 날 및 두루 창립일'을 기념하여 전 직원에게 친환경 마이보틀을 선물하고, 이를 계기로 사내 환경실천소모임을 결성하여 '종이컵, 미니생수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100일 동안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위 캠페인에 동참한 결과 종이컵 사용량이 1/3로 이하로 줄었고, 미니생수 사용도 현저히 줄어들어 총 10그루의 나무를 살리고, 23.125 L의 석유를 아끼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새해에도 환경실천소모임은 전기절약, 종이절약 캠페인 등 지구를 지키는 소소하고 다양한 환경운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02

기부 활동

지평은 2010년부터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 외 주요 기부

-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지원
- 이음장애인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이음여행' 지원
- 한국여성의 전화 제9회 여성인권영화제 지원
- 탈북자자녀 대안학교 '겨레얼학교' 지원
- '빵 만드는 사람' 공동체 지원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지원
- 미혼모자시설 '애란원' 지원
- 사북지역의 교육을 위한 협동조합 '천개의 숨' 지원
- 이화여자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 베트남 건너대학 한국학센터 설립 지원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 출판사업 지원
- 사북 미래인재 학생포럼 인문학 도서, 수학 교구 지원
- 2015 장애인권교육강사 심화워크숍 지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송년문화행사 '함께, 소리쳐' 지원
- 관악구 성착취 십대 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지원

미얀마 홍수 피해복구 후원

지평은 8월 주한 미얀마 대사관을 방문해 묘탄페(Myo Thant Pe) 주한 미얀마 대리 대사에게 폭우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에서도 프로 및 직원들이 미얀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금을 마련하였고, 회사에서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동일 금액을 후원하였습니다. 9월 15일 DICA(미얀마 외국인 투자 등록청)에 후원금을 전달하였고, 17일에는 전직원이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구호품 및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네팔 대지진 피해복구 매칭그랜트 후원

지평은 6월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 및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네팔 지원 프로젝트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후원에는 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에 상응해 회사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후원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이 활용됐고, 이에 지평 구성원 46명이 참여했습니다. 네팔의 경우 후원금 전달의 투명성과 신속성 등에 문제가 있어, 지평은 후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신두팔축 지역 커피 농부들의 생산지 재건 등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커피의 '지역정착 프로그램' 및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네팔 지진 피해마을 어린이 지원 프로젝트'에 기부금이 사용되도록 지정 기부했습니다.



'혹시 나도 아동학대 가해자?' 공익강연

지평은 5월 7일 장형운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상근 부소장을 초청하여 아동학대 및 성폭력을 주제로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서 마련하고 있는 아동학대 발견, 대응, 치료와 예방 시스템에 관한 소개와 함께 아동학대의 정의와 후유증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계부모에 의한 학대만 조명하는 언론보도의 문제점, 성폭력피해자를 비난하는 시각의 문제점, 성폭력·아동학대에 이은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은 이야기 공익강연

지평은 9월 24일 난민법 전문가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의 김종철 변호사를 초청하여 '더 나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 지원의 필요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필의 노력 등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한 박해로부터 도피해 온 나이지리아 난민, 공항의 송환대기실에서 두 달 이상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속되었던 에티오피아 난민 등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날 공익강연은 지평과 두루가 난민들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두루 공익영화 '미라클 벨리에' 상영회

두루는 장애인법연구회와 함께 2015년 11월 20일 씨네코드 선재에서 영화 '미라클 벨리에' 상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화 '미라클 벨리에'는 가족 중 유일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소녀 플라가 합창학교 오디션에 도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드라마입니다. 이날 영화는 배리어프리("영화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화면해설과 대사, 음악,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한국어 자막을 넣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 버전으로 상영되었습니다.

두루 공익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두루는 노동법연구소 해밀과 함께 8월 18일 충무로 대학극장에서 영화 '위로공단' 릴레이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흥순 감독은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과 첫 인터뷰를 한 후 이 영화를 본격적으로 기획하여, 3년 동안 다양한 직군의 여성노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위로공단'은 인터뷰 내용의 울림도 묵직하지만 영상미도 뛰어나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 최초로 은사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사회가 끝난 후에는 임흥순 감독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03

공익교육 활동

지평과 두루는 구성원들이 좀 더 쉽게 공익에 다가서고, 공익·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익강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익인권 영화를 상영하여 함께 관람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01

공익활동 이야기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법무법인 지평
정선열 변호사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검찰에서 실무수습을 할 당시, 학교폭력 관련 형사조정사건을 조력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부모는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얻어내고자 혈안이었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였습니다. '청소년' 스스로의 주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자문변호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자문 내용은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센터 자문은 현장의 고민을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문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추후 수사 결과 허위 고소로 드러났을 경우 센터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법률가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공적인 역할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전히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은 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훨씬 큰 보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지평을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문 영역의 예비구성원 변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아동·청소년 영역 공익활동이 있다면

저는 일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화, 이미지, 폰트 등의 다운로드 시 저작권 위반 등 청소년들이 실제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 취약계층 청소년에 비하여 그 교육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법률 이슈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공적인 역할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전히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은 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훨씬 큰 보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지평을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INTERVIEW 02

공익활동 이야기

성수동의 색채를 바꾸는 이들을 돕다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나종일 매니저

조직 규모를 키우는 것 자체에 주력인 조직이 있는가 하면, 구성원의 성장을 통해 임팩트를 키우는 조직도 있는데, 루트임팩트는 후자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루트임팩트의 구성원은 많지 않지만, 이 사회에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트임팩트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루트임팩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사람을 '체인지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루트임팩트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인지메이커로서 뛰는 것도 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무수한 체인지메이커들은 뒤에서 돕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트임팩트는 이 사회에서 체인지메이커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루트임팩트는 성수동에서 '디벨'이라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발한 체인지메이커들이 이곳에서 함께 거주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활동을 응원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최근에는 2호점을 개장하였습니다.

루트임팩트에 합류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대학교 졸업 직후에는 작은 소셜벤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비즈니스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적 환경이 변하여 수입 창구가 막히게 되었고, 그 후 카페와 레스토랑을 탈북민들과 함께 경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소셜벤처가 처하게 되는 '한계'라는 것은 무엇인지, 루트임팩트에서 일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세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실력의 부족, 두 번째는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는 환경, 세 번째는 팀워크의 위기였습니다. 선명하고 뚜렷한 사명감을 가진 이들에게도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트임팩트가 소셜벤처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소셜벤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곳에 합류한 지 만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사회에는 "비영리 조직은 관료적이다", "성과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임팩트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고, 탁월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실 좋은 일일수록 탁월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규모를 키우는 것 자체에 주력인 조직이 있는가 하면, 구성원의 성장을 통해 임팩트를 키우는 조직도 있는데, 루트임팩트는 후자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루트임팩트의 구성원은 많지 않지만, 이 사회에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들과 협력하면서 느낀 점은

변호사님들의 태도에서 이곳 소셜벤처를 돕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지평·두루의 자문을 받아 본 소셜벤처 담당자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진정성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도 흔치 않은 만큼, 우리가 합심하여 소셜벤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평·두루와 루트임팩트의 협력사업이 우리나라 소셜벤처를 위한 프로보노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수행한 공익활동을 소개하자면

올해 법률자문으로는 SK 행복한 학교 인사노무관리 관련 자문, 모 독립언론 방송법 및 파견법 관련 자문, 통일부 개성 공업지구 관련 자문, 해밀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의 위헌성 관련 자문을 수행했고, 소송 사건으로는 파키스탄 출신 기독교인을 대리하여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산나눔재단과 애란원에서 법률교육을 했으며, 법제처와 통일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을 꼽는다면

난민소송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소송파트 김영수, 구정모, 한철웅 변호사님, 회사파트 이상희 외국(미국)변호사님,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님과 함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도 매번 장시간 진행된 의뢰인과의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고, 서면도 각자의 부분을 분담해 작성했습니다. 의뢰인과 통역을 위해 밤 10시까지 회의에 함께해 준 이상희 외국(미국)변호사님, 새벽 2~3시까지 회사에 남아 서면 초안을 작성해준 후배 변호사님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내내 저희들이 쓴 부족한 서면을 가다듬어 준 김영수 변호사님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일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평소 소송파트 업무도 많을 텐데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하는지, 가정생활과의 양립은 가능한지

저도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 드릴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지만 다만 저는 그날 기분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특정 공익사건을 수행할 변호사를 찾는다는 공고 메일이 돌면,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잊혀지기 전에 회신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일단 지원하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는 저도 늘 고민인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저녁 식사 약속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조금 포기하면 일할 시간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관련하여 올해 아쉬운 점과 새해 계획이나 포부는 무엇인지

아직 객관적으로 공익활동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1달에 10~12시간 정도 공익활동을 한 것 같은데, 1주일에 10시간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년에 500시간, 20년 동안 1만 시간을 공익활동으로 채워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배우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공익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공익활동을 해보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싶고, 또 그 과정에서 저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배우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공익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공익활동을 해보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싶고, 또 그 과정에서 저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INTERVIEW 03

공익활동 이야기

올해의 공익다산왕에게 2015년을 묻다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INTERVIEW 04

공익활동 이야기

소셜 앙터프리너 SOCIAL ENTREPRENEUR 사회혁신기업가

사단법인 두루 이사 /
사단법인 아쇼카한국
이혜영 대표

중국 여공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복경 소재 NGO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중국인 여성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허스키한 목소리, 멋진 만다린 발음을 가진 분이었는데, 중국을 그저 '인권 문제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라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그분과의 만남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이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소개한다면

저는 '인권 활동가'로 저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같은 훌륭한 개념과 체계라도 현실의 변화를 기민하게 읽고 스스로도 변화하는 유연성을 잃으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변화'입니다. 아쇼카에서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감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소셜 앙터프리너 (Social Entrepreneur)'라고 부르는데, 저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준 단어였습니다. 기존의 틀이나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점에 아쇼카와 저의 공통점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저를 '소셜 앙터프리너'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쇼카 이전의 삶은

대학원에서 국제협력학을 전공한 이후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2년간 일하였고, 2003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최초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던 역사적인 순간에 로비스트로서 현장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NGO의 제안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에서 탈북여성들 100여 명을 인터뷰하고 영문보고서를 만들었고, 그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바스피아'라는 새로운 NGO를 설립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녀 두 명이 아무런 백도 없이 단체를 만들어 5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 후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을 때 같이 바스피아를 만든 남편이 한국에 아쇼카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쇼카 펠로우에 지원하려고 한국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쇼카 한국을 이끌어 나갈 대표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일이 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쇼카 철학의 정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두루 이사를 1년 동안 하시면서 느낀 점은

제가 직접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 변호사 분들을 보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었습니다. 지평과 두루를 보면 사회변화를 꿈꾸는 공익단체들을 돕고 지원하는 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쇼카에서 일하면서 좋은 점은 사회 변화에 가슴이 뛰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는 건데, 그런 분들이 지평과 두루에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년 동안 지평과 두루의 공익 활동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평과 두루에 바라는 점은

대학원 시절 여름방학 동안 홍콩아시아인권위원회(AHRC)에서 인턴을 하면서, 중국 여공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복경 소재 NGO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중국인 여성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허스키한 목소리, 멋진 만다린 발음을 가진 분이었는데, 중국을 그저 '인권 문제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라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그분과의 만남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이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넘어, 그 이상의 '프레임워크 체인지(framework change)'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분리정책이 없어진 것은 중요한 제도적 변화지만,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뿌리 깊은 생각, 관행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률가들이 "법과 제도의 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마인드셋과 문화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NTERVIEW 05

공익활동 이야기

인강재단 문제해결을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사단법인 두루
이주연 변호사

현재 두루에서 주로 어떠한 일을 맡고 있는지

저는 장애인 인권분야의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강재단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과 소송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가서 상담도 하고, 요청이 들어오는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영화 관람할 때 시·청각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소송과 자문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나 상담 등도 하고 있습니다.

인강재단 소송과 법률자문의 경과는

2014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강재단 산하 인강원 거주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보조금 유용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과 함께 이사 해임 등 관할관청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청인 서울시에서는 이사들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렸는데, 이사회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인강원에 여전히 함께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지평과 두루는 특히 해임명령 불응에 대한 서울시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로 하여금 구 이사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뒤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 이사회가 서울시와 새로운 이사회를 상대로 행정,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새로운 이사회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인들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행정과 민사 본안소송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신청 사건들을 승소한 덕분에 새로운 이사회가 힘을 얻었습니다.

인강재단 소송과 법률자문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해임명령 불이행 상태가 장시간 계속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부모님들의 반대가 컸고, 확실한 선례나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거주 장애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 법률팀, 새로운 이사회, 사회복지학 교수님, 지자체 의원님들, 장애단체 활동가들이 모두 비슷한 생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셔서 팀워크가 좋습니다. 장애문제는 변호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의 고민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두루와 이주연의 공합, 앞으로의 각오는

두루는 김지형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님, 감사님, 두루 소속변호사 사이의 공합이 좋습니다. 저는 자꾸 일을 벌리고, 혼자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두루는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외에 찾아서 도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김용진 변호사는 묵묵히 끝까지 일을 함께 해주고, 강정은 변호사는 상임변호사로서 노련하게 많은 것을 커버해주고 조언해주는 점도 저에게는 다행스럽고 고마운 점입니다. 두루 입사 후에 지평의 선배 변호사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실력있는 공익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공익변호사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두루에서 실력을 잘 쌓아 단 한 분에게라도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인강재단 구 이사회 해임명령 불이행 상태가 장시간 계속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부모들의 반대가 컸고, 확실한 선례나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거주 장애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승소하여 새로운 이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하지 못해도 국제수화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친해
질 수 있었고, 비록 서로가 다른 국적을 갖고 있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방면으
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올해 세계농아청년캠프와 세계농인대회에 참가하였는데, 대회 소개를 한다면

세계농아청년캠프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행사로, 50개 국가에서 2명의 농아청년 대표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경험
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번 캠프는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강화(Deaf Youth
Renaissance)'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농인대회는 세계농아청년들뿐 아니라 각 나라 농아인협회, 노인회, 여성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4년에 한번
씩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역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고, 약
5,000명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팀별 토론을 하였습니다.

인상 깊었던 토론 내용은

인공 와우(달팽이관) 수술로 인하여 구화(입모양을 통한 의사소통)가 가능한 청각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수화 언어를 잃어가면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에 관한 토론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농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
어난 청인 자녀가 이중적인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당선된 농아인 국회의원 사례
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사례는, 농아인으로서 청인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
다는 이야기였기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복기가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농아인들도 매우 어려운 환
경 속에 놓여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화언어법의 중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수화통역사의 수도 현
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결국 농아인들이 시위나 가두행진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은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일 수 있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참가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나라의 문화와 수화 언어, 청년회 등에 관한 내용을 교류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영어를 하지 못해도 국제수화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친해질 수 있
었고, 비록 서로가 다른 국적을 갖고 있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방면
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아인으로서 회사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

농아인이 혼자이다 보니, 회사 행사에서 수화통역이 없어 진행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송비서팀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할 때 동료 분들이 매년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업무지원 요청 메일이 올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농아청년캠프와 세계농인대회 참가 경
험을 영양분으로 삼아, 앞으로 회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농
인 사회에서도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농인청년을 리드하는 멋진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INTERVIEW 06

공익활동 이야기

세계농아청년캠프, 세계농인대회 참가자

법무법인 지평
소송비서팀
김희선 사원



INTERVIEW 07

공익활동 이야기

지평에 감도는 공익활동의 바람, 그 중심에서 본 광경

법무법인 지평
재경빌링팀
안현정 사원

종이컵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꾸준히 상기시킴으로써 평소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바꾸어보고 싶었습니다.



환경실천소모임이 결성된 이유와 종이컵 사용 줄이기 운동의 취지는

처음에는 개인컵 사용하기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 지평에서도 실천해보자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프로와 직원들이 모여서 환경실천소모임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이컵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평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자극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 취지가 아닐까 합니다. 종이컵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꾸준히 상기시킴으로써 평소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바꾸어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의 작은 노력이 모여 자연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지평 구성원의 노력이 환경보호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성과는

환경실천소모임은 마이보틀을 나눠주고 더불어 미니생수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해왔습니다. 캠페인 시작 전에는 매주 약 1,250여 개의 종이컵을 사용하다가, 캠페인 이후에는 매주 179-453개의 종이컵을 사용하여, 매주 1그루 이상, 두 달 동안 약 10그루의 나무를 지킨 것과 다름없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미니생수는 사용목표량에서 남은 생수량으로 계산하니 23.125 L의 석유를 절약한 것과 같았습니다. 시행한지 100일 만에 예상보다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사북포럼 천개의 숲이나, 고궁 야간개방 자원봉사활동 등 다른 공익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봉사활동과 그 이유는

‘사북포럼 천개의 숲’ 활동에 가장 애착이 갑니다. 고궁 야간개방 자원봉사활동도 좋지만 사북에 첫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첫 방문 당시 제 눈에 비춰진 사북의 모습은 안마시술소, 도박게임장 등 아이들에게 유해한 업소들이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북은 카지노 시설이 들어선 이래 지역 중심에 도박, 안마시술소, 전당포, 모텔 등이 성업 중이고, 그곳의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그러한 환경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의 70% 이상이 사북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또래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논술, 글쓰기, 체험학습 등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지평의 공익활동은 어떤 의미인지

공익활동을 통해 단조로울 수 있는 회사생활이 보다 다채롭고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현재 지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익활동을 보면 고궁 야간개방 자원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연탄나눔운동, 농촌봉사활동 등 개별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활동이 많습니다. 만약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봉사활동들을 지평 공익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DONATION

두루 기부 이야기

두루
FUN-딩

후원 계좌 및 문의

신한은행

140-010-878456

(예금주: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두루

02.6200.1853

당신에게 '두루 Fun-딩'을 제안합니다!

현재 지평의 출연으로 두루에서는 세 명의 공익변호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두루의 세 공익변호사 덕분에 지평의 공익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지평에 감도는 온기는 더 커졌으며, 더 따스해졌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두루 후원에 동참해 주실 경우 지평에 감돌았던 이러한 온기는 지평을 넘어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로스쿨 졸업생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전업 공익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공익변호사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더 많은 공익변호사가 배우고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기부보다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평·두루와 인연을 맺은 크고 작은 공익단체들도 참 많습니다. 두루가 개인 후원자들과 공익단체들 사이에 믿을 수 있는 징검다리라 되어서 귀한 돈이 꼭 필요한 단체에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기부자들은 두루의 회원으로 소속감과 무한 애정, 언제든지 두루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5년 두루를 후원해 주신 분

법무법인 지평 강원일 강율리 강재영 강정은 구동균 김병선 김상준 김성수 김영문 김영수 김용진 김윤희 김이태 김지형 김지홍 김진권 김태형 김판수 김학규 김형근 김혜라 남유선 노충욱 마상미 명한석 문정우 민창욱 박경택 박근배 박성철 박영주 박용대 박호경 반기일 배성진 백종현 서문용채 성희진 신은진 신자영 심희정 안상훈 양영태 여연심 유정민 유정환 윤성후 윤영규 이강호 이공현 이광선 이근동 이병주 이상희 이선화 이소영 이승수 이승현 이은영 이주연 이준길 이춘원 이태현 이해원 이행규 이해은 이홍재 이훈 임성택 장운정 장품 장향석 정원 정진 정철 조용기 조용환 최승수 최승호 최유진 최정목 하지민 한승혁 한철웅 황인영

두루가 잠재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세요!

두루에 펀딩을 하게 된 계기는

두루가 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펀딩에 대한 안내가 있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공익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펀딩의 작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펌에서 공익활동이 가지는 의미는

개인적으로 공익활동이 지평 변호사님들의 지친 일상 속에서 자그마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Minor To Winner'라는 소셜벤처의 계약서 작성, 당사자 간의 협상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자문

을 제공했었는데, 그 해 크리스마스 때 해당 기업에서 작은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보면 그 마음씨가 참 고마웠습니다. 아직도 그 카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루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느낌 점

늘 뿌듯합니다. 특히 지난 공익의 날에 상영된 '지평-두루 공익뉴스'를 보는 내내 두루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립 후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지났는데도 참 많은 일들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두루가 잠재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세요. 후원하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이은영 변호사

ACCOMPLISHMENT & EVALUATION

공익활동 평가지표

1. 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평가	
A 구조	1.A.1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있음 명칭: 지평 공익위원회	
	1.A.2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있음	
	1.A.3 공익활동 프로그램 / 목표 설정 여부	있음	
	1.A.4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있음 3:118 (변호사 총정원 118명)	
	1.A.5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	있음	
	1.A.6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두루 상근변호사 및 직원, 공익위원회 직원을 통한 공익활동 코디네이트 등 행정업무 지원	
	1.A.7 공익활동 관련 교육 제공 여부	있음 연간교육시간: 10시간	
B 활동	1.B.1 총 공익활동 시간	4,229.69시간	
	1.B.2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2.33% (4,229.69시간 : 181,368.55시간)	
	1.B.3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35.84시간 (4,229.69시간 : 118명)	
	1.B.4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1.06시간 (4,229.69시간 : 103명)	
	1.B.5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87.29% (103명 / 118명)	
	1.B.6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58.47% (69명 / 118명)	
	1.B.7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및 1인당 평균 시간	소속변호사 68명 83.82% (57명 / 68명), 32.17시간 (2187.44시간 : 68명) 구성원변호사 50명 92% (46명 / 50명), 40.85시간 (2042.25시간 : 50명)	
	1.B.8 공익활동 관련 예산	공익활동 지원비	15,722,457원
		공익활동 교육 지원비	1,569,030원
		외부공익단체 지원비	182,708,513원
합계		200,000,000원	

분야	평가지표	평가
B 활동	1.B.9 공익활동 수치	공익소송 대리: 40건 공익자문 의견: 375건 상담: 230건 도움받은 사람: 약 645명
	1.B.10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2015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1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 방식	① 소위원회와 NGO단체 자문변호사 중심 공공기관 및 NGO와 협력하여 공익활동 수요 발굴 ② 진행 시 공익위원회 보고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변호사에게 배당하거나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 또는 내부 공고를 통한 지원자 배당
	1.B.12 공익활동 지원	2015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3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2015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C 평가·보상	1.C.1 공익활동이 평가 · 승진 · 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① 국내 · 외국변호사, 공익회계사(내지 전문가) 및 직원도 연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화 ② 예비구성원변호사 및 직원 평가 시 공익활동 반영됨

2.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평가
A 기부	2.A.1 기부 총액	182,708,513원
	2.A.2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585,604원 (312명)
	2.A.3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96.29% (175,928,513원:182,708,513원)
	2.A.4 기부 현황	2015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B 사회봉사	2.B.1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1756.5시간
	2.B.2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5.63시간 (312명)
	2.B.2 사회봉사활동 현황	2015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 본 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국내 변호사 118명(지방사무소, 해외사무소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공익전담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소속변호사)의 활동 시간은 제외하였습니다.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사회적 책임 보고

※ 본 항목은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작성한 것을 참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론」(법과사회 제43호, 2012년 12월)



법과 윤리

01 로펌 내 이익충돌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통제절차

지평 윤리헌장 있음(의뢰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보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차별금지 등 13개 조문)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체크시스템 존재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노력 시행 등

02 위법행위 발견 시 통제절차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 있음(윤리헌장 13조: 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절차)

03 공정한 전문가 활용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의무 준수

대형로펌 중 비변호사 고문의 숫자가 가장 적음(7명)



기부, 사회봉사, 공익활동

01 기부, 자원봉사, 공익소송의 수행·지원, 무료법률상담, 공익변호사 인건비 지원, 예비공익변호사 양성·지원, 공익단체 지원, 공익법 연구, 공익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입법지원

공익보고서에 갈음함



차별금지와 인적 다양성

01 구성원의 다양성

10대 로펌 중 가장 높은 여성변호사 비율 (전체 변호사 중 31.7%, 파트너 중 16.3%)

최초로 시각장애인 외국(미국)변호사 채용(2015. 9. 1.)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3.43%)

수화를 제1언어로 하는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근무

탈북민 출신 채용 송무팀 근무

02 소수자 차별 금지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있음 (소수자를 배려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음)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차별금지 등을 강조하며 교육함

장애인차별금지 활동을 주요 공익활동으로 설정함

03 채용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입사지원서에 능력과 무관한 부모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

0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변협 제1회 일·가정 양립대상 수상

변호사를 포함한 육아휴직 시행 중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 중



법조인 양성

01 수습변호사 연수

여름 및 겨울 등에 로스쿨, 사법연수생 대상의 인턴 프로그램 시행

공익연수 인턴 프로그램 시행

02 로스쿨 실무과목 교육 지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원광대학교 로스쿨 등에서 실무과목 강사로 활동

기타 특강 등으로 로스쿨 교육 지원



적절한 사건 수임

01 비윤리적 사건에 대한 수임 배제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업무 수임 배제(윤리헌장 3조)

02 과도한 사건 수임 자제

탈법적 방법의 수임금지

과도한 수임 경쟁 지양



환경

01 탄소배출 감소 활동, 재활용품 사용

환경실천소모임을 구성하여 종이컵, 패트병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2015년 하반기 시행 3개월만에 종이컵 68%, 패트병 30%를 줄이는 성과)

재활용품 모아 아름다운 가게 등 재활용품 판매행사 격년으로 진행 (2015. 4. 25. 재활용품 3,569점 기증)

이면지 사용 등 재활용품 사용 권장

02 환경 관련 NGO 지원

환경 공익소송 수행(송전선로 피해보상 관련 헌법소송 진행 중)

환경 관련 NGO 지원



정보공개와 사회적 책임 보고

01 구성원 현황 등에 대한 로펌 정보의 공개

로펌 정보의 공개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의한 정보공개

02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간

공익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이행보고 포함



JIPYONG DUROO PRO BONO

2015 지평 공익위원회

위원장	임성택	안지혁
위원	강율리	안현정
	강정은	오세훈
	강혜련	윤재민
	구나영	유수민
	김삿별	이상희
	김영수	이슬비
	김용진	이승민
	김이태	이은영
	김지형	이주언
	김태오	이 훈
	김태형	정미자
	박용대	정지혜
	배기완	최윤영
	서진하	최정규
	설일영	한창우
	신중길	허성필
	박혜중	홍애란
		황인영

2015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	김우연	이공현
		김태오	이상희
이사	강율리	박호경	이소영
	문영화	배기완	이승민
	박용대	서진하	이주언
	이혜영	설일영	이혜은
	임성택	신중길	이 훈
		심희정	정미자
감사	김영수	안지혁	최윤영
	임승혁	안현정	하지인
		오세훈	한창우
회원	강정은	유수민	허성필
	강혜련	유정민	홍애란
	구나영	윤재민	황인영
	구정모	이강호	
	김용진	이경호	